

# 롯데백화점, 광주 복합쇼핑몰 입점 경쟁 가세하나

정준호 대표, 쇼핑물 증장기 전략 발표  
수원아울렛, 리모델링 후 쇼핑물 전환  
2030년까지 국내외 사업에 7조 투입  
지역내 '빅3 유통사' 경쟁 본격화 전망

더현대와 광주신세계가 광주에 복합쇼핑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 빅3 중 하나인 롯데백화점도 광주복합쇼핑몰 진출 계획을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신세계와 현대백화점에 이어 세 번째로 롯데백화점의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빅3 유통사'의 복합쇼핑몰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타임빌라스 그랜드 오픈·쇼핑물 증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지난 24일 그랜드오픈한 경기 수원점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인천 송도, 대구 수성, 서울 상암, 전북 전주에 신규 쇼핑몰을 짓고 기존 아울렛인 광주 수완점과 전북 군산점, 동부산점, 경남 김해점 등 6개 점을 쇼핑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롯데몰로 운영 중인 서울 은평점과 경기 수지점도 타임빌라스로 전환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도 베트남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의 성공을 이을 쇼핑몰을 추가로 출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2030년까지 국내외 쇼핑물 사업에 7조원을 투입, 신규 출점과 기존 점 리뉴얼을 통해 쇼핑물 타임빌라스를 13개로 확대하고 현재 1% 수준인 쇼핑물 매출 비중을 3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 쇼핑물 매출을 연 6조6000억원, 해외까지 포함하면 7조원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광주지역 복합쇼핑몰 부지로 선택한 롯데아울렛 광주 수완점 일대는 고층 아파트와 고급 타운하우스가 밀집한 광주의 떠오르는 주거지역이다. 여기에 인접한 전남·북 시·군을 연결하는 교통인프라가 뛰어나 충분한 입지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지역 복합쇼핑몰은 더현대광주를 시작으로 그랜드스타필드 광주가 출점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더현대서울'보다 1.5배 큰 '더현대광주' 복합쇼핑몰을 오는 2027년 완공해 2028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어등산관광단지에는 신세계프라퍼티가 '그랜드스타필드광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곳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복합쇼핑몰을 중심으로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광주신세계도 광전동 터미널부지에 백화점 확장을 통한 '아트 앤 컬처 파크' 조

성을 추진하고 있다.

터미널 부지 매입 절차를 마치고 대규모 주거단지까지 계획, 기존 백화점을 3배 늘린 복합쇼핑몰을 2028년까지 준공

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롯데아울렛 광주 수완점은 2026년 리모델링 및 복합쇼핑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복

합쇼핑몰의 규모나 관련 예산 등 전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국회서 열린 '해남 농수특산물 장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 앞에서 열린 해남 농수특산물 장터에서 명현관 해남군수, 정진욱 국회의원 등과 함께 특산물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

## 목포대·순천대 '통합의대' 불발... 공모 방식 진행

실무회의서 통합 형태 입장 못 좁혀  
양 대학, 입장문서 "통합 논의 지속"  
용역사 "투트랙 기반 최선 방안 모색"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통합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의대 설립은 공모에 의한 추진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 대학이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무 회의를 통해 통합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공모 마감일인 11월20일 이

전까지는 두 대학이 통합합의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하 용역사)은 이날까지 양 대학에 통합합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양 대학의 통합 논의가 미뤄지면서 합의서 제출이 불발됐다.

양 대학은 지난 27일까지 5차례에 걸친 실무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대학 통합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통합 형태 등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기간 내 합의에 실패했다.

양 대학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학 통합에 기반한 의과대학 신설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 대학은 전남도 용역사의 공모 절차와는 별도로 전남 도민의 의료 복지 향상과 양 대학의 미래 발전을 위한 대학통합의 취지에 상호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역사는 지난 22일 전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목포대와 순천대 관계자들에게 이날까지 통합합의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공모를 통해 한 개 대학을 정부에 추천하겠다고 발표했다.

통합합의서 제출 불발로 용역사는 양 대학과 평가기준 논의를 위한 대학설명회 및 공청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동부권은 29일 오전 10시30분 동부지역본부 이순신 강당에서, 서부권은 오는 31일 오후 3시30분 목포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다.

공모 일정은 11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의 평가를 통해 최종 추천 대학을 선정하고 25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공모 마감일인 20일 전까지 양 대학에서 통합에 합의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통합합의서를 제출하면 공모를 보류하고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통합의대'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에이티커니코리아 오병길 파트너는 "11월25일까지 추천 대학을 정부에 반드시 추천해야 하므로 일정이 촉박하다. 통합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며 "'통합 의대'와 '공모' 방식을 모두 열어놓고 최선의 설립방식 마련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